



병원사목과 간호원

정 현 주 수녀
서울 성모병원

간호는 어떤 사람을 돌보는 일을 말한다. 자신이 알게 모르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의 그 필요를 충족시켜 주어서, 그가 보다 나은 상태로 옮겨갈 수 있도록 하는 말하자면, 어떤 보완의 역할이라고도 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현대 간호학계에서 「人間中心의 全人看護」란 말을 무슨 구호처럼 외치게 된 것도 당연한 추이라 할 수 있겠다.

그렇다. 너무나 당연한 흐름이다. 우리가 어떤 질병을 치료할 때라도 궁극적으로는 그 질병을 앓는 「사람」을 돌보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좋은 간호원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람이 어떠한 존재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지식과 이해는 물론 사람에 대한 풍부한 애정이 있어야 한다.

오늘날은 과거의 그 어느때 보다도 人間學이 發達했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있다. 그러나 여기서 그런 문제에 초점을 맞추다 보면 물줄기를 따라 산으로 올라간 물레방아간 주인격이 되겠기에 간호생활 5년간 수행해 오면서 경험했던 일을 중심으로 간호와 사목의 관계를 나름대로 몇가지 말해보려 한다.

Y는 3년전 내가 담당했던 경추관절탈골(C₅₋₆ dislocation)로 인한 四肢마비 환자였다.

그의 증세를 기술한 문장은 지극히 간단하지만 그것이 뜻하는 바는 실로 엄청난 것이었다. 눈에 보이게 나타난 상처도 없이 장년기에 있는 한 남

자가 어깨 위로 윗부분만 움직일뿐 그 아래로는 까딱도 못하는 상태로 언제까지일지도 모르는 일원생활을 하고 있었다.

내가 지금 근무하는 병원에서 두번째 병동을 부임한 다음날 아침, 10층에 있는 정형외과 마비환자 병실에 들어섰을때 8개의 침대중 7개의 침대에 누워있는 환자의 눈길이 나에게와 닿는 것을 느꼈다.

그러나 유독 창가에 있는 회전 침대에 누운 환자만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는(Y) 몇번의 수술을 받고도 회전 침대에서 조차 떠날 수 없는 자신의 증상때문에 실의에 빠져 있었다.

그날 나는 가슴이 막혀움을 느낄뿐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다는 생각조차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일단 그방을 나올 수밖에 없었다.

사실 간호를 해오면서 그런 경우는 많이 겪어온 터였다. 하지만 그때마다 알서는 그 막막함, 아마 간호경험이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느껴본 것이리라.

나는 우선 그에게 가까이 가는 일부터 시작했다. 회복에 대한 아무런 희망이 없는 사람을 두고 참으라느니, 용기를 가져야 한다느니하며 운운하는 것이야 말로 역겨움만 더해줄 뿐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는 내가 가까이 가서 인사를 해도 멀건히 바라볼 뿐 아무런 반응을 나타내 보이지 않았다. 나는 그런 그를 뵈 수 있는 한 자주 찾았고 그때마다 메아리없는 외침같은 미소를 보였다.

어떤 때는 그에게까지 가지도 못하고 공중에서 연기처럼 흩어지는 것 같은 느낌도 들었다. 그런 것들은 때로 나의 행위와 능력에 대한 회의를 몰고 오기도 했다.

그런 날이 계속 쌓여가던 어느날 나는 내 개인적인 용무로 병실에 들르지 못하고 말았다. 다음날 병실문을 밀고 들어섰을 때 나는 보았다. 그의 얼굴 하나 가득 담긴 반가움의 표정을.

나는 그날부터 새로운 용기를 가지고 그를 도왔다.

그러나 그뿐. 그는 통 말이 없었다. 보호자라도 있으면 그의 가정환경이나 기타 다른문제점들을 찾아내, 간호에 도움을 받을 수도 있었겠지만 입원생활 1년이 넘도록 그의 보호자는 나타나지 않았다. 하는 수 없이 처음 입원할 때 그를 맡았던 사람들을 찾아 그에 관한 사항들을 알아보았다.

부인과, 몇명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많은 아이들을 거느린 한 가장이었던 그는 고층건물 벽면에 페인트를 칠하는 일을 하다가 추락하여 산재보험 환자로 병원에 옮겨져서 치료를 받게 되었다.

처음에 부인은 아이를 등에 업고 병원을 드나들었지만, 얼마 가지않아서 출입이 끊겼다. 이유는 남편에게 아무런 장래 보장이 없음을 알고 회사측과의 관계를 돌보아 주던 동네남자와 살기 때문이었다. 아이들이 어떻게 흩어졌는지도 알 수 없이 그는 혈혈단신이 되었던 것이다.

나는 또 다시 아무런 반쪽도 나타내지 않는 그를 계속 관심을 두고 할 수 있는 노력을 다 했다.

머리 말에 약봉지가 있으면 물을 떠다 먹여주기도 하고, 아무 것도 할일이 없으면 묵묵히 바라보다 눈이 마주치면 미소를 보였다.

그의 입원기간이 1년이 넘고 2년이 가까워져, 치료종결에 관한 문제가 논의될 무렵, 그는 뜻하지 않게 나에게 가톨릭교회에 입교할 뜻을 밝혔다.

뭐라고 말할 수 없이 나는 기뻐했다. 나는 원목실의 도움을 받아 그의 영세를 준비했고 여러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그는 하늘의 아들로 탄생을 하게 되었다.

그후 그는 조금씩 말을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그의 입을 통해서 그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무렵 그는 퇴원을 앞두고 고민하고 있었다. 누구 한사람 반갑게 맞아줄 가족도, 돌아가 누울집도 없는 그의 퇴원이 뜻하는 것은 뻔한 일이었던 것이다.

내가, 자꾸만 풀어지는 발음을 모아 퇴원할 때가 왔다고 말했을 때 그는 갈곳이 없다며 주룩룩 눈물을 흘렸다.

나는 더 보고 있을 수가 없어 방을 나왔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 퇴원 수속이 진행되었고 그는 끝내 퇴원했다. 아무런 불평도 없이 그의 퇴원하는 모습을 볼 수 없어 내 근무실에 앉아 있을 때 “봄이라도 오면 퇴원이 조금 덜 어려울텐데...” 하며 중얼거리던 그의 간절한 음성이 사방에서 들리는 것 같았다.

나는 그가 어떻게 그의 최후를 마쳤는지 알 수 없다. 그러나 그는 나에게 많은 것을 알려주었다. 가톨릭 병원에서 근무하는 나에게, 환자를 돌본다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그는 알려주었다.

환자들은 무엇보다 우리들의 관심을 원한다. 그들의 아픔은 육체적인 질환에서 시작되지만 그보다 더 아픈 것은, 누구하고도 함께 있을 수 없다는 거리감과, 누구도 그 고통을 나누지 않는다는 고독감이다.

그 절망적인 고독의 무시무시한 강을 역사하지 않고 건너게 하는 것이, 바로 그를 돕는 사람들이 가지는 관심이다.

그들은 그네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원한다. 우리들 건강한 자들의 당당한 교훈을 듣기보다 그들의 마음 맨 밑바닥에서 흘러나오는 이야기를 들어주기를 바란다.

그들의 부자유한 신체에 의한 어려운 몸짓이 뜻하는 그들의 외침을 들어 주기를 너무나도 간절히 원한다. 그래서 그 말이 듣는 이의 가슴 깊은 곳에 들어가 하나의 의미가 되기를 바라고, 그 결과, 그들은 바라는 오직 한 마디의 대답이 나오

기를 기다린다.

「나는 너를 한 사람으로 사랑한다」는 오직 한 마디의 「말씀」 그래서 그들을 돌보는 사람은 예리한 관찰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 주고 그리고 가끔씩 자신들도 모르게 이상한 발작을 일으키는 그들의 심정을 이해하고, 침착하게 받아주기를 그들은 또 원한다.

그들은 특히 가톨릭이나 다른 종교단체에서 경영하는 병원에서 그들의 고통과 죽음이 그렇게도 허무한 절망만을 안겨주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을 해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우리 가톨릭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원들은 한 人間의 고통앞에서 목숨까지 빼앗길지도 모르는 위험스런 상황도 짊어지고 잊고 예수님의 얼굴에 피땀을 닦아주던 저 베로니카의 여성다운 심정과 용기를 지녀야 한다.

나아가서 말없이 자기 발등에 눈물을 퍼붓는 마리아·막달레나의 눈물의 의미를 알아주고, 많은 굴중이 밀리는 가운데서도 치유의 간절한 소망을 안고, 떨며 옷자락을 잡는 여인의 손끝을 구별하던 예수님의 예민하고도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임상간호에 임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의 삶은 결코 고통으로 끝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같은 영광을 안겨 준다는 확신, 어세상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린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 그것이 임무를 다하는 것이고 자신의 삶의 의미를 심화시켜 나가는 길일 것이다.

그리고 이것만이 이웃을 도우며 이웃과 함께 이웃안에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삶」을 살아 가는 바른 길이 될 것이다. ◆

의 사 의 윤 리

우리 의사는 사람의 고귀한 생명과 건강을 보전향상하는일을 탐구하고 실천학을 본직으로 삼는다. 의사는 인류사회에 대한 봉사정신에 투철하고 지성인으로서의 긍지를 갖는다.

이에 우리 의사들은 다음과 같은 윤리를 준수할것을 서약한다.

1. 의사는 환자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의 질병을 예방, 진료함을 사명으로 한다.
1. 의사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최고의 의학수준을 유지하도록 끊임없이 연구 노력한다.
1. 의사는 과학적근거위에 정립되지않은 예방 및 치료에 종사하거나 관여하지 아니한다.
1. 의사는 새로운 진료방법을 쓰거나 사람을 의학의 조사연구대상으로 함에있어 신중을 기한다.
1. 의사는 의학적판단과 의술을 훼손하는 어떠한 행위에도 구애받지 않으며 직무의 전문성에 대한 권위와 영예를 드높인다.
1. 의사는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 최선을 다하며 필요할때에는 다른 의사의 협력을 요청한다.
1. 의사는 의도의 양양을 위하여 서로 협력하고 의사의 품격과 명예를 손상시키는 선전이나 광고를 하지 아니한다.
1. 의사는 진료등 직무수행에 따른 적정한 보수를 받는다.
1. 의사는 정당한 사유없이 직무상 알게된 환자의 비밀을 누설하지 아니한다.
1. 의사는 보건의료의 직무와 더불어 지역사회발전에 적극 참여한다.

대한의학협회

※ 제 31 차 醫協총회에서 새로 채택한 「의사의 윤리」는 일부 字句를 修正하고 한글로 表記했다.